



일본 농업 6차산업화 사례 조사

- 치바 와고엔 운영사례 -

■ 일본 농업 6차 산업화 우수사례 ‘와고엔’

- 와고엔(和郷園)은 농산물의 생산, 유통, 가공, 수출 그리고 관광까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(農事組合法人)
- 현 와고엔 대표이사 및 판매회사인 (주)와고(和郷) 대표를 맡고 있는 키우치 히로카즈(木内博一) 씨가 1991년(당시 23세) 5명의 동급생과 야채생산농가로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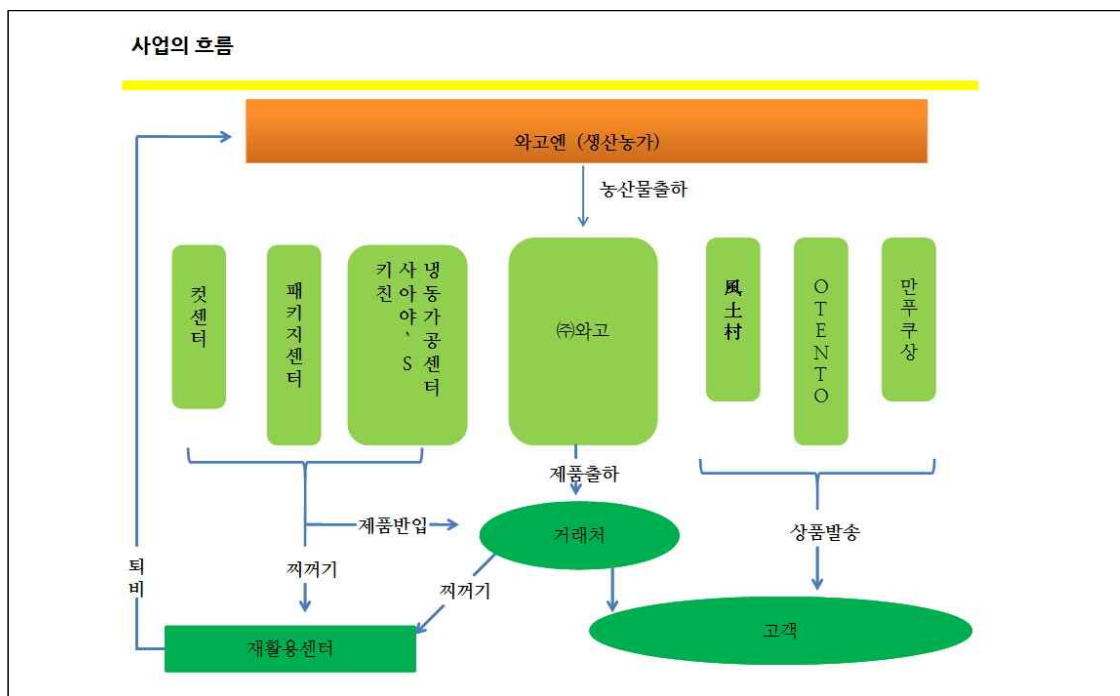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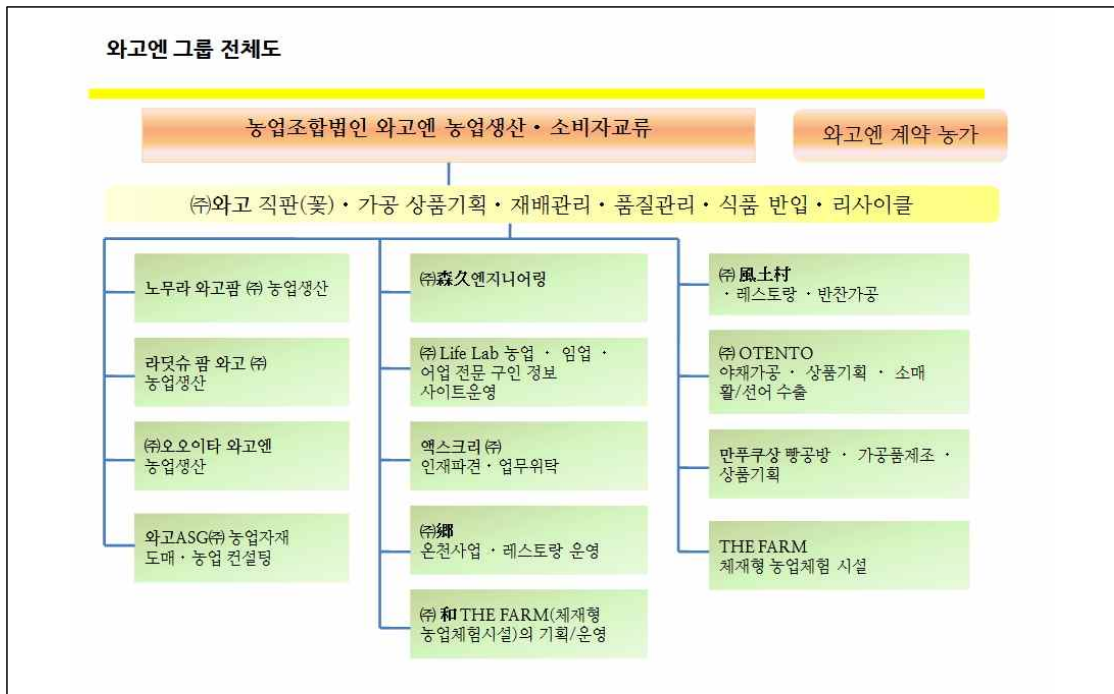


■ 와고엔의 사업내용

<생산 · 가공 · 판매 · 수출>

- 농협법인 와고엔은 지역 농가 및 직접재배를 통해 미니토마토, 토마토, 우엉, 양상추, 오이, 당근, 상추 등의 채소를 생산하여 (주)와고에 출하. 이 중에 컷트·패키지 및 냉동공정이 필요한 경우 자체 공장을 거쳐 유통업체 및 지역 생협에 (주)와고가 공급. 또한 지역 학교 및 병원에 급식용으로 몇 가지 채소류를 혼합하여 개별적으로 공급
- 일부 야채는 수산물시장(츠키지)로 운송하여 수산물과 함께 혼적하여 홍콩 등지에 일본식 식당에 수출(수입자는 홍콩 현지 법인)

- 이밖에도 도쿄에 있는 직접 판매매장, 유통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치바 지역 직판장 등을 운영
- 야채류 생산 및 가공 공정중에 생기는 채소더미를 비료로 전환하거나 바이오매스로 변환하는 리사이클링 공장을 운영하여 생산부터 처리까지의 일관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



		
와고엔 본부	야채 가공(컷트,패키징)공장	리사이클링 공장

<관광 결합>

- 와고엔은 이 밖에도 농림수산성 및 치바시에서 ‘지역경제활성화’ 관련 보조를 받아 ‘The Farm’이라는 체험형 농장을 운영. 농업과 관광을 결합
※ 50% 자부담, 50% 보조로 4년간 4억엔 보조(40% 중앙정부, 10% 치바시)
- 개인을 위해서는 주말농장용 토지(개인용, 법인용)및 농기구를 대여, 수확한 채소와 치바지역 육류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바베큐장 운영. 이 밖에도 레스토랑,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Cottage 운영
- 법인용으로 토지 및 농기구대여, 세미나실,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

<기타>

-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치바대학의 식물공장 설치 노하우를 가지고, 식물 농장을 건설. 운영할 방침
 - 일본 식물농장의 대부분이 채산성이 나오지 않지만, 가격적인 등락폭이 높은 양배추의 경우, 외식업체에 계약납품을 통한 채산성 확보를 할 방침
- 이 밖에도 인재파견, 농업자재, 타지역 연계 농장운영 등 다양한 사업영역 구축

		
개인용 농지 대여	레스토랑 내 지역농산물 판매코너	Cottage
		
치바지역직판장(후도무라)	세미나실	온천(카린노유)

■ 시사점

- 우수사례로서 현지 미디어 등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농업법인임으로 농산물 생산 판매가 주 수익. 리사이클링, 관광 부문은 향후 흑자화를 전망
 - 또 다른 6차 산업 사례로 나가노의 ‘탐리버’가 있지만, 실질적으로 향후 국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와고엔이 유일
- 사업내용 면으로 보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, 각각의 사업부문은 지역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집하, 출하 등에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
 - 선별장 또한 와고엔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농가별로 그룹을 만들어 수작업으로 야채를 선별하고 있는 등의 비효율적 측면도 있음
- 농산물의 생산, 가공, 유통(수출), 관광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융복합 사례로 지역농가소득 보전, 관광소득에의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,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

※ 자료관련 문의 : 도쿄 aT 센터 이세호 대리(81-3-5367-6694)